

생활



1박2일 가야에서 살아남기

진덕이의 가야생활 / 강민진(김해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에서나 생겨날 나의 후손들에게

/ 조수현(울하중)

만능형사 Mr.조의의 가야에서 도둑 찾기! / 조수빈(삼문고)

가야의 삶 탐구하기 / 한한철(장유고)

가야에서 사는 법 / 김태윤(경남고)



진덕이의 가야생활

강민진 김해여자고등학교 1학년

안녕? 나는 가야에 살고 있는 진덕이야. 오늘 너희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해 알려줄 거야. 그전에 내 소개부터 할게. 나는 10살이고 엄마, 아빠, 오빠, 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 나중에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아버지는 토기를 구우시기도 하고 오빠는 갑옷을 만들어. 그리고 우리 언니는 장신구를 만드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그럼 이제 소개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볼까?

먼저 선사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사용한 도구들을 보여 줄거야. 따라 와 볼래? 이게 무엇처럼 보이니? 저건 펜석기라고 하는 건데 구석기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들이야. 저걸로 사냥감들을 손질하기도 하고 작살로 만들어서 사냥을 하기도 했대. 종류도 다양해. 굽개, 밀개, 뚜르개, 새기개가 있는데 종류별로 쓰임이 달랐던 걸로 알려져 있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선사시대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었을까? 물론 동물 가죽을 그냥 걸쳐 입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 봐. 이게 뭘까? 이건 가락바퀴라고 하는데 그림처럼 가운데 뚫린 구멍에 막대를 끼우고 섬유를 회전시켜서 실을 만들어냈어. 정말 똑똑하지 않니? 이젠 아



반달돌칼

까 말한 농사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벼농사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했어. 정말 오래됐지? 이걸 봐. 반달돌칼이야. 반달돌칼은 반월형석도라고도 하는데 이삭을 따는데 쓰이는 청동기시대의 농기구야.

또 옛날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했는데 이걸 봐. 옛날 물고기 잡이를 할 때 썼던 작살과 낚시 바늘들이야. 이 검은 흑요석은 약한 충격에도 예리한 날로 만들 수 있어서 옛날부터 칼, 바늘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얻고 옷을 지어 입었는지 알겠지?

이제 우리 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해줄게. 일단 내가 쓰는 필기구들이야. 저 긴 나무를 죽간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글을 쓰고 틀리면 삭도로 긁어내서 다시 써. 삭도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 이제 여기로 와볼래? 이게 뭐인 것 같니? 이건 관이야. 저기 저렇게 죽은 사람을 넣고 깃털로 만든 부채를 얼굴 위에 뒀. 죽은 영혼이 새처럼 하늘로 날아오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을 저렇게 함께 묻기도 해. 함께 묻는 물건들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물건들이었겠지? 어떤 물건들이었는지 알아보자.

여자들에게는 목걸이나 귀걸이가 그런 물건들이었지. 우리 가야인들은 금, 은 보다 수정이나 옥으로 만든 장신구를 선호해. 빛이 비취지면 찬란한 빛들이 아름답거든. 우리 언니도 저런 목걸이를 만들어. 남자들에게는 칼이나 화살들이 그 역할을 했겠지. 가지고 다니면 용맹하고 멋져 보이잖아.

자 여기서 퀴즈! 우리 가야는 별명이 있어. 땡!땡! 왕국인데 정답을 아는 사람 있니? 답은, 철의 왕국이야. 왜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는 이제 알게 될 거야. 따라와 봐~. 덩이쇠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돈이야.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저렇게 작은 것도 있는데 값어치는 10배야. 들고 다니기 무겁긴 하지만 많을수록 좋아~ 내가 좋아하는 장신구를 많이 살 수 있잖아!

요즘에는 금, 은으로 만든 장신구들도 많아. 내가 아까 우리나라사람들은 수정이나 옥으로 만든 장신구를 더 좋아한다고 그랬지? 근데 옆 나라인 신라에서 금귀걸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참 예쁘더라고. 말안장꾸미개도 금으로 만들었고 저 허리띠도 은으로 만든거야. 예쁘지 않니? 이젠 2층으로 올라가보자. 올라가서 내가 사는 집을 보여줄게.

여기를 봐. 우리 집도 이렇게 생겼어. 이건 원래 토기인데 잘 못 구워져서 뒤틀렸지만 집 모양으로 토기를 만들다니 참신하지 않니? 집이 이렇게 생긴 건 날씨가 습하고 더워서 땅 위에 바로 지을 수 없기 때문이야. 높은 집에 사는 건 불편할 때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아. 저 위에 올라 앉아 해가 지는 걸 보면 정말 멋지지. 다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알려줄게. 우린 주로 재배한 곡식을 먹는데 저 씨앗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어떻게 먹냐면, 저 부뚜막 보이지? 저기서 음식을 삶거나 쪄 먹고 절구에 찧어서 먹기도 해. 다음으로는 예안리 사람들을 소개할까 해. 예안리 사람들은 특이한 습속을 지니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납작하게 누른다고 해. 그래서 이 머리뼈도 납작하게 눌러져 있는거야. 그리고 예안리는 바닷가 마을이어서 예안리 사람들은 바다에 잠수해서 먹을 것을 구했어. 그래서 예안리 사람들의 인골을 보면 잠수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궤병인 외이도골종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해.

이제 가야의 아름다운 토기들에 대해 설명해 줄게. 가야에는 이 굽다리접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 굽다리접시는 보이는 것처럼 그릇에 다리가 붙어있어. 덕분에 음식을 먹을 때 수월할 때가 많아. 우리는 토기에 문자나 기호를 기록해 놓기도 해. 이걸 봐. 여기는 ‘이득지’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성함이야. 이렇게 만든 사람의 이름을 써 넣기도 했어. 여기 옆에 기호가 새겨진 것도 있는데 비밀암호인가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오빠가 만든 갑옷을 구경하러 가볼까? 처음에는 가죽이나 나무로 갑옷을 만들었다고 해. 근데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해서 철갑옷도 만들기 시작했지. 판갑옷과 비늘갑옷으로 나뉘는데 판갑옷은 이렇게 생겼고 비늘갑옷은 저렇게 생긴 거야. 진짜 비늘처럼 생겼지?

자 이제 모든 설명을 끝냈어. 재미있었니?? 다행이야. 가야에 관심 많이 가져주길 바래. 안녕~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에서나 생겨날 나의 후손들에게

조수현 김애올하중학교 2학년

에헴~, 안녕 나는 너희들의 먼 과거에 살고 있는 조상님이야. 내가 아직 12살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후손들이라고 부르니 뭔가 신기하고 새롭네. 히히. 언젠가는 잊혀지고 지나가버려 하나의 유적과 유물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추측들로 남겨져 땅 속에 묻힐 것들을 생각하니 내가 살았던 이 시대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남아 미리미리 편지를 써서 남기기로 했어. 내가 쓴 이 편지가 먼 미래의 땅 속에서 발견된다면 아마 너네가 우리 시대를 복원하고 공부하는데 큰 자료와 힘이 될 거야. 그리고 이 가야라는 시대를 기록했던 사람은 내가 최초가 되겠지? 가야 시대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직 없거든. 그럼 이제부터 내가 가야에 대해 설명해 줄게!

가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기 전에 먼저 가야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 너희가 흔히 잘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구성되어진 삼국 시대에, 신라의 아래쪽에 있던 작은 국가로 가야는 위치하고 있었어. 다른 큰 나라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작은 나라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우리 가야의 특징이지. 아마 너희가 우리가 물어 놓은 수많은 철 광석과 도자기들에 대해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있겠지? 여기서 너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바로 이러한 도구들은 사람의 기본 생존 조건인 음식, 옷, 집이라는 조건과 특징에서 비롯한 용품들이라

는 것이야. 유물들을 보고 무조건 분석하려 하기 보다는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담아서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먼저 이 집모양토기를 볼래? 뭔가 특이하지 않아? 이 토기는 2014



집모양토기

년에 새롭게 창원에서 발굴된 토기야. 이 토기의 벽면에는 가는 선들이 있어 다양한 무늬를 표현하고 있고, 정면에는 출입시설까지 만들어져 있는 아주 정교한 토기야. 그럼 여기서 퀴즈! 이 토기의 입구와 출구는 어디까? 맞아! 이 토기의 입구는 지붕의 가운데 있는 굴뚝같은 구멍이고 출구는 문이 있는 앞쪽이라고 해. 그럼

두 번째 퀴즈야!! 이 토기는 얼마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을까? 답은 350ml정도라고 해. 이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토기라는 점이야. 가야의 집은 가장 먼저 움집으로 만들어 졌어. 살림집으로 상용된 움집은 부뚜막과 온돌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지. 그 이후로 생겨난 것이 이와 같은 다락집이야. 높은 기둥의 이층집으로 짐승과 습기로부터 곡물을 보호하고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지. 이 집 모양의 토기를 통해 우리가야의 특징을 말해주자면, 우리 가야는 해변에 위치한다는 점이야. 우리는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하거든.

이 커다란 항아리는 보기만 해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니? 이 커다란 항아리가 생기게 된 배경은 이 집 모양 토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우리는 근래에 들어 수확량이 많아지면서 곡물 저장 창고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거든. 이 항아리는 제사와 곡식 저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돼. 또, 항아리의 모양이 다 다양한 것으로 보면은 다양한 곡식을 재배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이 토기는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

로 쓰이기도 했지만, 실제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

짜잔! 이 물건은 많이 본 물건이지? 맞아 바로 시루라는 거야. 시루는 음식을 삶거나 찌는데 사용되는 도구야. 양쪽 손잡이가 달려 있는 구멍이 뚫린 도자기와 물을 담는 도자기를 함께 사용하지. 불을 지피게 되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 도자기 안의 음식을 따뜻하게 하는 원리로 음식을 찌거나 삶게 돼. 그래서 실제 발굴되는 그릇들에는 아마 그을림 자국이 많을 거야. 우리가 음식을 대부분 찌거나 삶아서 먹기 때문에 이 시루를 많이 이용하거든. 이 시루를 받치고 있는 아래쪽이 바로 부뚜막이라는 것이야. 부뚜막에는 큰 돌로 받쳐놓아, 도자기가 무거워 내려앉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동시에 열을 빨리 전달시켜 음식을 빠르고 더 맛있게 조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 돌이 없으면 쓰지 않는 도자기를 넣기도 해.

여기 이상한 통과 길쭉한 나무 막대기 보이지? 이것이 바로 절구와 공이라는 것이야.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로 곡식을 빵아 가루로 만들거나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하였어. 이 때 평평한 절구는 곡물을 빵는데, 둥근 절구는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했지. 또한, 이러한 절구와 공이를 이용해 죽 같은 음식을 해 먹었어. 옛날 조상들은 이러한 절구공이와 비슷한 물건으로 갈판과 갈돌을 사용했다고 해. 너희가 아직도 추리하기를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 하나의 힌트를 더 줄게. 우리는 나무로 만든 식탁을 썼어. 이 식탁은 우리들 당시의 생활을 잘 담고 있는 물건이기도 해.

내가 이 편지를 묻은 곳에서 150발걸음을 걸으면, 작은 동산이 나올 거야. 옆 동산에 있는 곳에는 우리들이 평소 묻어놓은 조개껍질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야. 그곳이 우리가 흔히 음식물들을 버리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던 곳이야. 이 곳을 파 보면 우리들의 생활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우리가 그 곳에 묻은 것은 토기, 동물 뼈, 도토리 저장 구멍이 등을 놓아두었어. 옛날 조상들에게도 이러한 쓰레기를 묻어두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 그 곳의 흥미로운 점은 점을 치던 '복골'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이야. 복골은 고대 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점을 치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이야. 사슴, 멧돼지의 어깨뼈를 많이 사용했는데, 보통은 사슴 어깨뼈를 많이 사용했지. 옛날 조상님들은 이와 비슷하게 창녕 비봉리 조개더미 퇴적층을 만들었다고 해.

이 물건을 봐~. 꼭 삽같이 생겼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살포라는 것이야. 옛날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비슷한 물건으로는 반달돌칼을 들 수 있어.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에 수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농기구였다면, 이 살포는 논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던 도구야.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특이한 도구로 유명하지. 여름철에 김을 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보면 될 거야. 또, 조상님들이 논농사를 장악하고 차지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물건이기도 했어.

이번에는 우리 가야의 장신구들을 알려줄게. 우리 가야도 우리만의 유행이 있었던 말이지! 먼저 이 금동관을 볼래? 사실 관은 우리 가야 보다는 신라에서 더 유명했어. 신라의 관은 화려하고 금빛이 가득했다고 한다면, 가야의 관은 보는 것처럼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해. 특히, 가야에서는 금이나 은이 많이 나지 않아 금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 신라에 비해 금관은 존재하지 않고, 금과 동을 섞은 금동관만 존재하는 것도 특징이야, 그래도 신라와 비슷한 방법으로 금관을 제작해.

금과 은이 나지 않는 가야에서는 그 대신의 장신구로 옥이나 수정이라는 것을 사용해. 옥은 아름답고 빛이 나 많은 보석과 장신구에

이용되었어.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이 거울이 바로 청동거울이라는 거야. 거울의 뒷면에는 다양한 글자와 문자가 가득 새겨져 있어. 우리는 거울 뒷면에 보통 수출한 지역, 사신 등의 이름을 적어 기록하곤 하거든. 청동거울은 지배자들의 권위이자 상징이야. 또, 우리 시대의 지배자들이 제사를 지배하는 만큼, 하늘의 전달자 역할을 했어. 청동거울은 미의 추구뿐만이 아닌, 권력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지.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중간 중간에 설명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도구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게.

반달돌칼은 내가 말한 살포와 같은 역할을 하던 도구였어.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지. 반달모양돌칼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방형, 삼각형의 돌칼 등 다양한 모양의 돌칼이 있었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두 구멍에 실을 끼운 후 묶어 고리를 만들어. 그 고리에 손을 넣고 밭의 작물을 베는 물건이었지.

이건 많이 본 물건이지? 맞아. 너희가 다 아는 낚시 바늘이야. 당시의 낚시 바늘은 동물의 뼈로 만들어졌어. 낚시 바늘이 만들어지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 결합식 낚시 바늘은 돌로 만든 축에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낚시 바늘을 이용해 연결시킨다. 단식 낚시 바늘은 돌로 만든 축 없이 바로 낚시 바늘을 연결시키는 방법이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물추야. 당시 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그물을 바닥으로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지. 이런 그물추와 낚시 바늘들을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이곳은 바다거나 정팔해양과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신석기 시

대의 가야가 바다였다는 증거를 더 보러 가 볼까?

이것이 내가 말한 창녕 비봉리 조개더미 퇴적층이야. 이 퇴적층은 약 1만년동안 흙이 쌓여 만들어졌대. 굉장하지? 이 흙은 당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던 흙이라고 추정된대. 어찌면 우리가 가야시대에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집 모양 토기도 당시의 습한, 바닷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 이 흙에서는 다양한 동물의 뼈, 토기, 도토리 저장 구덩이 등이 발견되었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음식 문화가 대부분이 조개였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신기한 것은 우리 시대에서 발견되던 복골이 이 시대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거야. 그 시대에서도 점을 친다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니?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금과 은이 잘 나지 않는 가야에서는 보통 옥이나 수정을 사용했어. 그럼 실제 옥이나 수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장신구는 어땠을까? 이것들을 봐. 바로 조개 팔찌와 발찌라는 것이야. 조개 팔찌와 발찌는 장례 풍습에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해. 실제로 발견 될 때, 죽은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팔찌와 발찌를 조개로 만들 정도면 얼마나 조개를 많이 먹었는지 알 수도 있겠지.

앞에서 내가 설명한 절구와 공이가 생각이 나니? 이것이 내가 말한 갈판과 갈돌이라는 것이야. 절구와 공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 절구와 공이처럼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드는데 사용되었고,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사용되었다고 해.

자! 어느덧 마지막 유물을 소개할 때가 되었네!! 이것이 바로 가락바퀴라는 것이야. 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가장 원시적인 도구로, 가야 시대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동물 가죽으로 만들

어진 옷을 사용하다가 면직물을 사용하게 되었지. 가야시대에는 끈끈하게 면직물을 엮는 방법인 평직을 사용해 옷을 만들었다고 해!

이제 어느덧 수많은 유물들의 소개를 숨가쁘게 한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은 가야라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통일 국가로 크기 못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내가 이 편지를 적어서 땅에 묻으려는 이유도 이 중 하나지. 나는 미래의 사람들이 가야라는 작은 나라에서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가야만의 문화를 꽃피웠다고, 가야의 발달된 생활 방식을 알아 줬으면 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 이 편지가 부디 여러분들에 의해 가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널리 전해지길 빌며...

- 가야시대의 어느 한 소년이. -



만능형사 Mr.조!의 가야에서 도둑 찾기!

조수빈 삼문고등학교 1학년

나는 만능형사 Mr.조! 요즘 굉장히 수상한 도둑들이 있다는 소식에 오늘부터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잠복수사를 할 예정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도둑들은 무려 과거의 가야에서 보물을 훔쳐온다고 한다. 정말 대단한 도둑들이지만 만능형사인 나에게는 금방 잡히고 말 것이다.

“흠, 꼬맹이 너도 따라 오고 싶다고? 좋다. 하지만 얌전히 있어야 한다.”

엇,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놈들이 온 것 같으니 조용히 뒤따라 가보자. 발걸음 소리를 보니 두 명인 것 같다. 두 명 정도는 내가 단번에 제압해주겠어!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상황에서 멋있게 등장하고 싶으니 잠시 기다리기로 한다. 녀석들이 전시실로 들어간다.

“자, 가자.”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도둑들이 역사연표 앞에 멈춰 있다. 저기에 숨겨진 문이라도 있는 건가? 흠... 알 수가 없군. 도대체 무슨 꿍꿍이 인거지? 그런데 도둑들이 뭐라고 중얼거리자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며 불꽃모양 빛이 생기더니 도둑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같이 가겠는가, 꼬맹이? 그럼 어서 녀석들을 뒤따라 빛 안으로 들어가 보자!”

으으으...어지러워, 도둑들은 어딜 간 거지? 일단 이곳은 나무로 만

든 집 안 인 것 같다. 주변을 살펴보니 덩이쇠로 보이는 것과 쌀이 담긴 항아리, 가락바퀴 등이 보인다. 진짜로 가야로 온 것 같다. 일단 우리는 한시가 급하니 도둑들을 찾아보자. 저 문으로 나가면 되나보군, 얼른 가자!

“아아아~.”

내가 문을 벌컥 열고 뛰쳐 나가자마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으로 떨어졌다. 가야의 사람들은 날씨가 덥고, 들짐승들을 피하기 위해 기둥이 있는 다락집에서 살았던 것을 깜박했군.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우선 도둑들이 훔칠 만한 것이 많은 장신구를 파는 곳으로 가보자. 음, 과연 도둑들이 탐낼 만해.形形色색의 목걸이들이 참 예쁘군. 주로 목걸이의 가운데 있는 동그란 초승달 모양이 태아를 상징한다고 한다. 주로 옥과 수정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들은 도둑들이 탐낼 만한데, 목걸이를 팔던 아저씨에게 물어봐야겠다.

“저기 아저씨, 혹시 이 주변에 수상한 사람 못 봤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상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응? 꼬맹이 뭔가 알아 낸 것 같다고? 아~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서 도둑들이 그냥 지나쳤다고?”

아마도 도둑들은 가야 사람들이 금과 은보다 수정과 옥을 더 좋아하는 것을 몰랐을 거다. 그럼 금을 노리고 있는 건가? 그런데 저 목걸이 파는 아저씨가 이마도 납작하고 이도 몇 개 없고 문신까지 있어서 더 수상해 보인다고? 그건 이곳이 ‘예안리’라는 마을이기 때문인 것 같다.

“꼬맹이도, 지금 너희들만의 유행이 있지? 머리를 여러 색깔로 염색하거나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단가. 그것처럼 저 아저씨는 그냥 풍습과 유행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나저나 이제 어딜 가서 도둑을 찾지... 그렇게 더 걷다보니 버려진 과자 봉지가 보였다. 틀림없어, 이건 도둑들의 것이야! 가야 사람들은 주로 향아리와 시루를 이용해 음식을 찌먹었지. 여러 곡식들과 생선, 조개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생활했으니 이건 도둑들의 흔적이야. 안에 조금 남은 부스러기를 보니 방금까지 여기 있었을 거야. 마침 주변에 아까부터 그릇을 만들던 사람들이 있으니 물어보자.

“저기요. 혹시 방금 전까지 여기 누군가 있지 않았나요?”

“당연히 봤지. 아까 와서 그릇에다가 자꾸 이상한 걸 꼭 써 달라 하더라고. 오늘은 나쁜 기운을 물리쳐 주는 井(우물 정)을 새기려 했는데 말이야...”

그렇다면 그 그릇에 단서가 있을 거 같군. 꼬맹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혹시 무엇인지 볼 수 있을까요?”

도둑들이 그릇에 새긴 글자는 ‘나도둑’ 과 ‘다털어’였다. 이 두 명은 저번에 미술품을 훔쳐 도망가다 길을 잃어 울면서 경찰에 연락한 바보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토기를 만들던 아저씨는 다른 동료들에게 더 물어보더니 말씀하셨다.

“잘은 모르겠는데, 저 뒤 패총을 지나 무역하는 곳으로 갔을 거야. 거기서 금을 가져간다 했던가...”

그렇군. 이제 확실히 알겠어. 자 어서 우리도 뒤따라 가자.

“아참, 거기 있는 과자 봉지 좀 주워올래?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니까.”

무슨 조개를 이렇게 많이 먹고 버렸는지 패총이 아니라 산이다, 산.

앗, 저기 도둑들이 보이는가? 얼굴에 스타킹 쓰고 있는 거 하고는... 누가 봐도 도둑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군. 일단 조금만 기다려 보자. 아마 녀석들은 지금 무역이 이뤄지는 틈을 타 이것저것 보물들을 훔칠 생각일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저 녀석들 지금 뭘 하는 거지? 위험하니까 내가 가볼테니 꼬맹이 넌 여기서 내가 멋지게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탕탕, 쿵!”

“모두 꼼짝 말고 보물을 다 내놔! 이거 보이지? 너희들의 그 철 칼로는 어렵도 없어!”

이런, 저 녀석들이 총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완전 바보인 줄 알았더니 총은 어디서 구해 온 거지? 하지만 나에게서는 어렵없다. 옆에 있던 바짝 얼어붙은 병사에게서 투구와 판갑옷을 빼앗아 입고 비늘갑옷과 투구를 쓴 말에 올라타 활을 들고 도둑들에게로 달려갔다.

“네 이 녀석들! 여기까지 와서 나쁜 짓을 하다니, 너희들을 당장 체포하겠다!”

“으아악! 형사가 여긴 왜 와 있는 거야! 우리 어떡해요!”

“몰라. 도망가!”

나는 우선 활로 쏘아 떨어뜨린 다음 말을 타고 달려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너희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순순히 조사 받으러 오시지”

이렇게 두 도둑을 체포한 후 밧줄로 꾀꾀 묶어 놓고 예안리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후 다시 돌아왔다.

도둑들이 어떻게 가야시대로 갔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 하지만 나는 형사계의 전설을 또 하나 세웠다.

“꼬맹아~, 안 무서웠니? 꽤 용감한걸. 좋아 그럼 내가 특별히 다음

수사에도 데려가 주지. 단, 앞으로 김해 박물관을 자주 방문한다는 조건 하에서야.”



가야의 삶 탐구하기

한한철 장유고등학교 1학년

1500년 전 어떤 왕국이 있었다. 독특한 문화와 생활을 간직한 나라였지만, 시간의 흐름을 견디지 못한 채 사라졌다. 그 역사가 묻힌 곳은 이 곳 김해. 여기서 17년 동안 살면서 사라진 역사를 파헤치고, 복원하고 있는 한 고고학자는 그 어떤 왕국이 ‘가야’라는 것을 안다. 지금까지도 가야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 중인 그 고고학자는 궁금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가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문화를 이루었을까?’ 그래서 그는 가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에서 다시 살려보고자 국립김해박물관에 왔다. 다행히 옛날 가야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이 이 곳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로 남아 그날의 이야기를 증언해 줄 것이다.

그가 먼저 주목한 것은 무덤이다. 가야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고고학자는 무덤에서 단서를 찾아보기로 한다. 커다란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그 속을 파내서 만든 나무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을 만들려면 할 일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 목관묘는 지배자의 무덤이 아닐까.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고고학자는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에 초점을 두었다. 옷칠제품과 청동거울, 청동검과 철검이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옷칠을 한 물건들을 쓰는데, 윤이 나서 예쁘고, 습기에도 좋다고 한다. 옛날에는 전문가들만이 옷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귀해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옷칠 제품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청동거울은 어떤가? 전시되어 있는 청동거울을 보면 얼굴이 비춰질 않는데 어떻게 거울이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전시된 거울은 거울의 뒷면이다. 앞면은 반사가 잘되도록 매끄럽게 만들어졌다. 빛과의 연관성 -사람과 태양, 별을 연결시키는 역할-으로 보아 이 유물은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청동검과 철검은 이미 검이라는 면에서 지배자의 권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추가로 청동기 시대와 철기시대를 떠올렸다. 아마 청동기와 철기가 같은 무덤에서 나왔으니, 이 시기는 도구의 재료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시기일 것이다.

‘그렇군. 이 무덤은 가야에서 잘 사는 부유층이나 귀족의 무덤인 것이 확실해.’ 고고학자는 추측이 맞았음을 기뻐하며 가야 귀족의 다른 아이템은 없는지 조사해보았다. 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수정과 옥으로 만든 목걸이. 이 당시에 금, 은이 있었는데, 왜 금귀걸이, 은목걸이는 없지?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금을 귀하게 여기는 지금 사람들과는 달리, 가야 사람들은 수정이나 옥과 같은 보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런데, 가야에서도 시간이 지나서는 오히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장식품들이 더 많아지고, 금은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선호도가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갑자기 취향이 변해 금은이 소중하게 여겨졌을까? 아니면, 무기를 만들기 위해 금은이 필요해서? 혹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가야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에 금은으로 만들어진 유물들. 이들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유물인 허리띠 꾸미개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이 은허리띠꾸미개는 주로 신라에서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던 것인데, 가야에서 출토된다는 것은... 신라 문화가 가야 문화에

유입된 것이 아닐까.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간섭을 받으며 무너져 갔던 왕국으로, 결국 신라에 흡수되어 사라져 갔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라의 문화가 가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신라에서는 금이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으니, 신라에 흡수된 가야에서도 서서히 금을 중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정과 옥 장식품을 대신하여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이 유행이 되었던 것이다.

가야인의 무덤에서 출발한 귀족의 삶, 그리고 신라의 영향을 받아 문화에서 일어난 변화를 새롭게 알게 된 고고학자는 이제 가야 사람들의 더 깊숙한 생활을 엿보기 위해 이동한다. 먼저 그가 멈춘 집모양토기 앞에서 가야인들의 주거 생활을 확인해보자. 아홉 개의 기둥이 약간 쏠려 있지만, 튼튼하게 윗층을 받치고 있는 2층 다락집 모양에, 맞배지붕에 문이 묘사되어 있고, 주입구와 주출구가 있어 액체를 담거나 따르는 용도로 쓰였을 이 토기는 가야 사람들의 주거 생활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집모양토기는 두 가지 종류인, 일반사람들이 살아가는 움집과, 부유층이 사는 다락집 형태로 나뉜다. 2층의 다락집을 짓는 것은, 짐승이나 습기로부터 곡물을 보호하기 위해 창고 용도도 있을 것이고, 그 높이로 짐작컨대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용도도 있을 것이다. 토기들 중 하나는 고양이와 쥐가 있다고 하는데, 가야 사람들의 일상을 재밌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제 가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살펴보자. 가야 시대에도 쌀과 보리, 콩 등 농사를 통해 얻는 곡식을 주로 먹었다. 신석기 때에도 빗살무늬토기처럼 가야 시대에도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토기를 만들었을까? 그 질문에는 진열된 커다란 대형토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만들었을 이 토기들은 곡식 저장용인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많은 식

량을 비축하기 위해 대형토기를 만들 정도였다면 가야 사람들은 아마 꽤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출토된 복숭아와 참외의 씨앗을 통해 옛날 사람들의 과일 섭취를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복숭아는 귀신을 물리치는 하늘의 열매이자 신성한 과일로 여겨졌다.

이것은 가야 사람들이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또 다른 증거로 운모와 복골이 있다. 고고학자는 운모가루가 사실은 금속이고, 사람들은 그 금속을 오랫동안 먹으면 귀신을 부릴 수 있게 되고,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놀랐다. 그가 또 신기해했던 복골은 점을 치는 뼈인데, 주로 사슴과 멧돼지 뼈를 사용한다. 뼈의 색이나 모양을 통해 점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뼈를 태워 갈라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부뚜막과 시루이다. 가끔 시골집에 놀러 가면 볼 수 있는 아궁이처럼, 부뚜막도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 위의 시루나 그릇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런데 부뚜막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운데 커다란 돌받침이 부뚜막을 버티고 있다. 우리 고고학자는 당연히 부뚜막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기둥이 열기가 잘 퍼지게 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다. 그 위에 놓여있는 시루는 무언가를 찌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가야 사람들도 찌먹는 요리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절구와 공이다. 알다시피 곡식을 넣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 가루를 이용해 죽을 해먹기 위해서다. 고고학자는 옛날



부뚜막과 시루

에 배운 신석기 시대의 갈돌과 갈판을 떠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야 사람들은 더 편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절구와 공이를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든 음식을 다양한 그릇들에 담아 나무식탁에서 먹는다. 네모나게 만든 접시도 있고, 옷칠을 한 그릇도 있고, 굽다리접시도 있는데, 이 굽다리접시 안에서 생선뼈가 발견된 점이 흥미롭다. 우리랑 똑같이 그릇에 담아 식탁에서 먹었던 가야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통해 더 가깝게 느껴졌다.

이제 가야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지냈는지를 살펴보자. 고고학자는 퀴즈 하나를 떠올린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동그랗게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이 난, 옷을 만들기 위해 실을 뽑아내는 도구는? 가락바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구멍에 막대기를 꽂아, 돌려서 실을 뽑아내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 외에도 뼈바늘, 돛자리를 만들 때 쓰는 고드랫돌 등이 있다. 가야 사람들은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 누에치기를 해서 만든 명주실이나, 삼나무에서 뽑아낸 마사를 이용해 더운 날씨에는 시원하고,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고 지냈을 것이다.

가야 사람들의 삶을 의, 식, 주 부분으로 나누어 세세하게 파헤쳐 본 고고학자는 추가로 가야만의 독특한 풍습이 없었는지 궁금해진다. 궁금중의 시초는 신기하게 생긴 머리뼈였다. 이 머리뼈는 앞머리가 눌러진 편두다. 편두는 천이나, 노끈, 돌이나 나무 판을 이용해 변형시킨 두개골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프리카나 다른 아시아, 유럽에서도 유행했던 풍습이다. 이런 부분은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많은 관심이 성형으로 이어졌음을 알게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에도 고의로 치아를 발치하거나 문신을 새기는 등 꽤 독특한 유행이 존재했다.

오늘 고고학자는 그동안 풀지 못한 궁금증이었던 가야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을 알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가야 지배층의 무덤과 유물을 둘러보고, 가야만의 문화가 신라의 입김에 닿은 뒤 변해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의식주에서 나타나는 가야 사람들의 삶과 독특한 풍습을 살펴보았다. 그는 가야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가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체험을 하게 되어 기뻐했다. 이제 1500년 전의 사라진 어떤 왕국은 그의 지금까지의 탐사와 앞으로의 노력으로 더 자세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 곳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오랫동안 지켜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가야에서 사는 법

김태운 부산경남고등학교 2학년

태운 :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야인들의 생활을 가르쳐 줄 부산 경남고에서 온 김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오늘 여러분께 가야인들의 생활을 알려 줄 거예요. 그럼 먼저, 가야인들이 살고 있는 곳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토기는 어떻게 생겼죠?”

학생 : “집 혹은 상가?”

태운 : “마치 집처럼 생겼죠. 이것은 바로 가야인들이 살던 곳의 집 모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토기예요. 그럼 이 집의 구조는 몇 층이죠?”

학생 : “2층이요.”

태운 : “예. 2층이예요. 이 토기가 2층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로부터 곡식이 상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마지막은 신분이 높은 지배자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2층으로 집을 지었다고 해요. 이제 옆에 있는 큰항아리들을 보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토기 안에 무엇이 들어 있죠?”

학생 : “쌀이요.”

태운 : “예. 바로 쌀과 곡식이 토기 안에 들어있죠? 옛날 가야인들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수확해 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의 토기들을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학생 : “크기, 색깔, 입구가 달라요.”

태운 : “예.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입구의 크기입니다. 이 입구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토기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입구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액체와 같은 잘 흐르는 것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입구를 작게 한 것 같아요. 다양한 토기들이 있는 건, 쓰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저 토기 안에 무엇을 넣을지 알아 보려 할까요? 이것은 어떤 열매의 씨앗 같나요?”

학생 : “복숭아 씨앗이요.”

태운 : “예. 복숭아 씨앗이예요. 이것을 통해 옛날 가야인들도 복숭아를 키워서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날씨예요. 하지만 옛날에는 기상청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날씨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뼈를 가지고 미래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뼈의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뼈의 갈라진 틈이나 뼈를 굽게 되면 또 갈라진 틈이 나오는데 그 틈을 보고 미래의 날씨를 예측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 부뚜막이 보이나요? 토기가 몇 개 있나요?”

학생 : “2개가 있어요.”

태운 : “예. 부뚜막 위에는 토기 2개가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토기가 2층 구조로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음식을 찌기 위한 용도예요. 밑에 있는 토기에는 물을 넣고 끓여요. 그러면 뜨거운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위의 시루에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와 안에 있는 음식이 찌지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 그릇에 있는 뼈는 무슨 뼈일까요?”

학생 : “생선뼈요”

태운 : “가야인들은 생선도 찌먹고 곡식도 찌먹겠네요. 이제 가야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여기 기울어져 서 있는 유물은 농기구인 살포라고 해요. 이것의 용도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요?”

학생 : “날씨요”

태운 : “예. 가장 중요한건 물이에요. 하지만 물이 종종 흠에 의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포를 이용해 물길을 막고 있는 흠을 뚫을 때 써요. 이 옆에는 철제낫과 철도끼가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학생 : “철이요.”

태운 : “예. 가야인들은 농사를 더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 철로 농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어 아까 본 것과 같은 큰 토기가 필요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야인들이 생선과 곡식들만 먹었을 것 같나요? 여기 조개더미를 볼까요? 가야인들이 먹고 버린 조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높은 층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 1층으로 이동해서 가야인들의 문화와 장신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야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보석이 무엇일까요?”

학생 : “수정이요”

태운 : “예. 수정과 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장신구들은 모두 옥과 수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신구는 방금 전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만들

어진 것 같지 않나요? 무슨 재료일까요?”

학생 : “금이에요”

태운: “예. 하지만 방금 전에 가야인들은 옥이나 수정으로 장신구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왜 갑자기 금으로 만들게 됐을까요? 가야는 신라에 의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야는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금으로 장신구를 만들던 신라에 의해 가야도 금으로 장신구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든 장신구가 더 예쁘나요?”

“이 덩이쇠로 가야인들은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돈으로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은 가야의 별명을 아나요?”

학생: “철의 왕국이에요”

태운: “예. 철의 왕국 가야도 있지만, 또 다른 별명으로는 신비의 고대 왕국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신비의 고대 왕국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냐면, 기록으로 남겨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가야인들은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태운 : “여기 청동거울 보면, 한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붓, 대나무, 칼이 보이나요? 이것은 지금도 사용하는 붓이에요. 이 붓으로 가야인들도 글을 썼답니다.”

“그럼 이 대나무 조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종이 대신 사용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글을 적다가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먹물로 적은 글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칼을 이용했어요. 이 손칼로 잘못 적은 글이 적힌 대나무 조각 부분을 깎아서 다시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야인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